

# Adam Smith 經濟思想의 反芻

李 柱 晟

| ＜目 次＞          |  |
|----------------|--|
| I. 「國富論」의 構成   |  |
| II. 重商主義 批判    |  |
| III. 分業과 勞動生産力 |  |
| IV. 學說史的 意義    |  |

Smith의 學說을 뒷받침하고 있는 思想體系를 요약해 보면 理神論的 世界觀에 입각한 自然法 哲學과 私利추구의 算術的 和가 公益으로 직결된다는 功利主義 思想이다. 이같은 두개의 支柱는 사상으로서는 경제적 自由放任主義이라고 하는 하나의 統一을 이룬다. 따라서 Smith의 「國富論」은 이 방입의 思想위에 구축된 學說體系이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資本主義 經濟秩序를 가장 힘있게 代辯하였다.

## I. 「國富論」의 構成

Smith는 사상가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다시 그 위에 經濟活動에 관한 原理를 구체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는 경제생활만이 아니라 인간의 心性을 다루는 道德哲學 一般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Hutcheson 교수의 후임으로 Glasgow 대학에서 道德哲學을 講義할 때 그의 講義內容은 神學, 倫理, 法哲學 및 行政學 분야에 걸치는 매우 넓은 영역이었다. 앞의 강의내용중 倫理에 해당하는 것이 「국부론」의 前篇으로서 1759년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라는 題名을 붙여 출간하였다. 국부론은 1767년 5월부터 執筆하기 시작하여 1773년 4월에 이르는 6년만에 完成되었고 刊行되기 까지는 9년을 요한 力作이다. 道德哲學을 강의하면서 構想하던 때로부터는 27년이 지났으며 그 前篇이 出版된 후 18년이 지났으니 1776년 3월 9일자로 世上에 나온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는 獨身으로 一生을 마쳐야 했던 그의

진生涯의 勞作이다.<sup>1)</sup> 도덕철학체계 중 法哲學과 行政學에 해당하는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는 1896년 E. Cannan 교수가 지난날 Smith의 한 弟子가 갖고 있는 노트를 이용하여 편집간행한 것인데 이중의 後篇인 租稅論과 軍費論의 일부분이 「국부론」으로 結晶되었다.

Book I에서 Book V까지 총 900면에 달하는 이 책의 構成을 보면, Book I에서 分業에 의해 勞動生産性이 증진되면 사회의 富가 늘고 그 社會成員의 생활에 改善이 온다고 본다. 分業에 의해 交換이 발달하고 그 교환을 돕는 手段으로서의 貨幣가 가지는 비율에서 價值와 價格이 논의되었다. 貨金, 利潤, 地代形態로 分配되는 生産物價格의 分解를 논하였다. 즉 市民社會의 生産과 分配의 原理를 밝혔다. Book II에서 資本形成에 관하여 논하였다. 資財 stock를 增殖시키는 자본이 利潤을 낳는 자본인 바, 이것을 돕는 노동이 生産的 勞動이라고 하여 非生産的 노동과 구별하고 있다. 富의 증가는 오직 이 生産的 勞動이 分業에 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Book III에서는 앞의 두 篇에서 전개한 학설에 근거해서 서로 다른 諸國民사이에 富裕의 정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 기인함인가를 찾고 있는 바 이는 經濟史에 해당한다.

Book IV에서는 重商主義 政策이 취하는 制限政策이나 一方的 保護가 초래하는 非自然的 性격을 비난하면서 重農學派(the agricultural system)에 偏向하고 이를 더욱 伸張시켜 生産적 노동의 개념을 완성하고 있다. 이는 당시까지의 經濟學說史에 해당된다. 마지막 Book V에서는 財政理論이 行政學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義務의 수행에만 經費를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한 收入源은 原則적으로 租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國防과 같은 사태가 생겼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公債의 발행에도 의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公債의 累積은 언제나 국가의 破産임을 경고하고 있다. 오늘의 뜻으로 보아도 하나의 水準 높은 財政學이다.<sup>2)</sup>

1) 출판을 위해 완성된 原稿를 가지고 London으로 향하기 앞서 Smith는 건강하지 못한 자신을 두려워 하여, 友人인 D. Hume에게 書翰으로, 죽을 경우, 자신의 遺稿를 출간토록 부탁하였을 정도로 이 勞作은 生死를 건 53세였던 產母의 아들이다.

2) 각 Book 제명의 原文은 아래와 같다.

Book I : Of the Causes of Improvement in the Productive Power of Labour, and of the Order according to Which Its Produce is Naturally Distributed among the Different Ranks of the People.

Book II : Of the Nature, Accumulation, and Employment of Stock.

Book III : Of the Different Progress of Opulence in Different Nations.

Book IV : Of Systems of Political Economy.

Book V : Of the Revenue of the Sovereign of Commonwealth.

## Ⅱ. 重商主義 批判

國富의 本質을 貨幣에서 본 重商主義者들과는 달리, 그는 그것을 勞動에서 찾았다. 과거 수世紀에 걸쳐 지배해 온 重商主義 學說이 金・銀과 같은 貨幣의 增殖을 國富伸張의 本질로 보았다고 비난하였다. 貨幣는 交換의 媒介物일 뿐 價値 그 자체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價値의 창출은 중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財貨의 交換 流通過程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生産의 勞動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 生産過程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여, 교환이나 外國貿易과 같은 流通으로부터 우리의 關心을 勞動力이 投下되는 生産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당시 經濟觀으로서는 하나의 큰 뜻을 가지는 分析方法上的 轉換이었다. 다시 말하면 商去來에서가 아니라 勞動이라고 하는 直接的인 生産속에서 가치형성의 本質을 발견한 점은 重商主義體系라고 일컫는 기존의 學說體系를 打倒하는 작업이었다.

이 作業은 그의 價値論에서 전개된다. 우리는 그의 價値論을 支配勞動價値說과 投下勞動價値說로 구분하고 있으나 「國富論」에서 전개된 전후의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은 구분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結論지을 수 있는 점은 분명히 投下勞動價値說이다. 교환가치의 本질이 그 商品을 生産함에 투하된 正常的인 건강과 熟練을 가진 勞動者의 勞動力의 지출에서 찾고자 한 점은 훗날 Ricardo의 客觀的 價値學說과 Marx의 剩餘價値學說의 骨格으로 된 勞動價値說의 과학적 上流임을 부인할 수 없다.

社會科學의 一分科로서의 經濟學이 Smith에서 성립될 때 經濟現象을 具體的 歸納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고 古典學派 전체가 그러하듯이 抽象的 演繹에서 一般法則性을 발견코자 한 것은 方法論上的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훗날 獨逸에서 완성된 List에 의한 歷史學派의 方法과는 매우 對照的이다. 學問이 학문답고자 한다면 演繹하는 힘의 도움없이 事物의 本質을 糾明하는 理論이 되지 못하고, 現象의 說明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理論은 앞에 던져지는 假說이 있어야 하고 이같은 가설은 역시 意識의 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思想家가 사상가다운 점은 그가 전개하는 哲學이 理論과 方法의 統一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기존의 方法에서 해방되어 屈折될 것을 요한다.

위대한 思想家들이 그러하듯이 Smith도 抽象化된 개념을 사용한다. homo oeconomicus는 지극히 利己心에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正義의 규율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利己와 利他를 정의라고 하는 法에 의해서, 즉 經濟의 世

界와 道德의 世界가 法の 世界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고 있다. 利己의 원리에 따르는 經濟의 世界와 利他=仁愛의 원리에 따르는 道德의 세계가 正義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法の 世界에 매개되어 하나를 이룬 世界觀이다. 同情을 기조로 하여 행동하는 인간의 행동원리를 찾고자 한 前篇(1759)과 自愛心을 기조로 하여 행동하는 人間을 설명하는 「國富論」(1776) 사이에 가로 놓인 矛盾性을 바로 正義心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인간을 들어 克服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추상화하여 들고 나온 經濟人은 이러한 正義와 仁愛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지극히 德性있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경제인은 정의에 입각해서 私利를 追求한다. 경제인의 利己의 行動이 보이지 않는 손(by an invisible hand)에 引導되어 調和된 自然的 秩序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公益을 초래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앞서 지적한 모순, 즉 利他心도 인간이 갖고 행동한다는 道德哲學과 利己心에 따른 경제생활의 사이에 놓인 理論的 間隔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正義心으로 연결된다고 하였으니 정의심은 적어도 個人에게 있어서는 별 뜻은 없고 社會的 目的達成을 위한 경우에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자의 행동원리에서 정의심이 작용하도록 바람은 妥當性을 지닌 論理는 아니다.

가능하다면 法的인 강제력이 政府에 의해서 行使될 때 사회적 正義는 어느 정도 自己位置에 올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正義世界가 달성될 수는 없다. 그것은 각자의 자유롭고 干涉이 없는 방임된 경제활동을 保障함에 쓸 수 있는 分析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불행히도 우리는 正義의 세계에 살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Smith의 책임일 수는 없으나 矛盾을 지닌 仁愛와 利己의 原理를 正義心이 각 개인으로부터 발휘된다는 것을 통하여 연결하고 이로써 社會的 調和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Smith의 見解도 다시 한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 경제조직에서 사회적 정의의 달성은 個人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전적으로 政府에 의한 의식적이고 指導的인 힘에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分析方法은 時・空의 制約性을 초월했다. 統計數値나 歸納의 수법이 아닌 보편적이며 연역적인 思惟의 힘을 빌리는 사상가다운 점에서 위대함을 보였다.

개인의 利己의 행동동기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善이 아니고 惡으로 看做되어 온 당시의 지배적 意識을 그로서는 反對로 社會總生産을 풍부케 함으로써 국민을 부유케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하여 도덕적으로 社會善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지대한 意識轉換이다. 이는 新興 산업자본의 立場을 대변하였다. 地主, 君主, 學者와 같은 사회층이 하는 일은 사회의 非生産的 노동이라고 하여 생산적 노동과 구별하였다. 국민의 富의 증대를 위해서는 전자와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層을 위한 支出을 抑制하고 後者の 제층에 속하는 者들의 생산적 노동을 돕게 하는 것이 社會的 資本이

蓄積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社會的 貢獻이 인정되어 산업의 생산을 刺戟하고 국부를 증대케 하였다. 「國富論」에 의해서 기존의 억압적 特權이 물러가고 그 곳에 經濟的 自由가 市民앞에 보정되는 사상적 轉換이 宣告되었다. 매뉴팩추어에 桔梗되어 있는 生産力 앞에 産業資本家の 生産樣式에로의 해방의 길을 열어 준 데 「國富論」의 총체적 意義가 있다. 상업자본에 대한 産業資本의 승리의 判決을 예언했다.

“Like all great books, The Wealth of Nations is the outpouring not only of a great mind, but of a whole epoch. The man who wrote it had learning, wisdom, a talent for words; but equally important was the fact that he stood with these gifts at the dawn of a new science and the opening of a new era in Europe. What he wrote was the expression of forces which were working, at the very time he wrote it, to fashion that strange terrible new specie-homo oeconomicus, or the economic man of the modern world.... The Wealth of Nations is undoubtedly the foundation-work of modern economic thought.”<sup>3)</sup>

Smith 經濟學의 학문적 출발은 기존 학설체계인 重商主義에 대한 반론에서 비롯된다. 당시 學說體系는 重商主義와 重農學派였다. 전자에 대해 그는 용서없이 비판한다. 이러한 反對意志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E. Cannan도 明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D. Hume의 저서를 통해서다. 重商主義者들과는 달리, Smith는 經濟學의 目的이 국가와 人民을 다함께 부유케 함에 있다고 하였다.

“Political oeconomy, considered as a branch of the science of a statesman or legislator, proposes two distinct objects: first, to provide a plentiful revenue or subsistence for the people,...; and secondly, to supply the state or commonwealth with a revenue sufficient for the public services. It proposes to enrich both the people and the sovereign.”<sup>4)</sup>

「國富論」은 重商主義를 批判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었다. 重商主義 學說은 금·은을 곧 富라고 보고 金·銀貨의 증식이 국부의 증가라고 보는 理論體系이다. 國富의 증식은 對外去來에서 발생하는 去來差額(balance of bargain system)이 정이면 이루어지는데, 이는 輸入을 억제하고 輸出을 促進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Th. Mun은 貿易差額理論(theory of balance of trade)으로 발전시키고, 後期 重商主義段階에 와서는 국제분업의 利益에 입각한 自由貿易의 理論으로까지 대두되

3)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ith an introduction by Max Lerner*, Random House, Inc., New York, 1937, p. v.

4) *ibid.*, p. 397.

었다.

“Mun argued that ‘the ordinary means therefore to increase our wealth and treasure is by Foreign Trade, wherein we must ever observe this rule: to sell more to strangers yearly than we consume of theirs in value.’ If, argued Mun, this rule is observed, the net result will be to bring money into the country,”<sup>5)</sup>

貨幣의 발생기원을 史的으로 고찰한 Smith는, 貨幣가 商品 중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重商主義에서와 같이 이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화폐보다도 勞動에 의해서 생산된 生産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나라의 富는 많은 것이라고 한다. 生産品이 있는 限, 언제나 金・銀은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金・은과 같은 화폐는 국내의를 막론하고 交換의 媒介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富가 生活必須品과 便宜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Smith의 견해는 화폐를 富의 本質로 보는 重商主義體系와는 그 태도 자체에서 完全對立의이다.

“It is not because wealth consists more essentially in money than in goods, that the merchant finds it generally more easy to buy goods with money, than to buy money with goods; but because money is the known and established instrument of commerce, for which every thing is readily given in exchange, but which is not always with equal readiness to be got in exchange for every thing.... It is not for its own sake that men desire money, but for the sake of what they can purchase with it.”<sup>6)</sup>

對外貿易에서 利潤의 원천을 찾는 重商主義 政策에 반대하면서 그는 외국과의 商品去來는 等價交換의 원리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去來對象國의 불이익이 自國의 이익으로 된다는 見解는 成立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利潤은 讓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勞動過程인 생산에서 나옴을 명시한다. 對外去來의 利益은 市場을 개방함으로써 거래국들 사이에 각국이 保有하고 있는 여유있는 生産物을 交換하고 이것들이 각국의 年年의 生産物을 增大시켜 인민과 政府의 富가 늘어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政府의 政策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年年의 生産物을 增大시켜서 國家利益을 풍부히 함에 그 政策根據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년년의 生産物은 消費될 수 있는 財貨이고 이는 바로 勞動生産量을 명시하면서 交換過程의 產物인 利潤으로서의 對外去來差額을 그렇게 증대시킬

5) Soule, G., *ideas of the great economists*,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New York, 1962, p. 20.

6) Smith, A., op. cit., pp. 406, 407.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울러 重商主義者들이 강조한 이유의 하나로 戰爭과 같은 비상시의 經費支出을 위해 對外去來에서 金・銀을 政府가 備蓄할 必要性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The principal benefit of foreign trade is not the importation of gold and silver, but the carrying out of surplus produce for which there is no demand and bring back something for which there is.... It is not always necessary to accumulate gold and silver, in order to enable a country to carry on foreign wars, and to maintain fleets and armies in distant countries. Fleets and armies are maintained, not with gold and silver, but with consumable goods. .. A nation may purchase the pay and provisions of any army in a distant country three different ways; by sending abroad either, first, some part of its accumulated gold and silver; or secondly, some part of the annual produce of its manufactures; or last of all, some part of its rude produce.”<sup>7)</sup>

貿易收支의 改善을 위해서 重商主義는 輸入의 制限과 輸出의 促進을 政府의 政策方向的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들은 첫째, 국산화할 수 있는 國內消費用 外來品の 수입을 抑制하고 둘째, 貿易差額이 不利하게 작용하는 모든 나라로부터의 輸入을 제한하며 셋째, 雙務的 通商條約, 輸出獎勵金 및 關稅還拂 등을 통한 수출促進策을 政府가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重商主義者들이 요구하는 一方的인 政府의 干涉, 즉 偏愛에 대해서 Smith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産業活動은 個人的 利己心에 따라 행해질 때 가장 社會的으로도 유익하다고 역설한다. 더욱이 그는 國內産業의 번영은 外國貿易의 신장보다도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산업에의 投資는 雇傭을 늘리고 要素所得을 크게 하며 더욱이 國富, 즉 年年의 生産品의 價値를 증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 各成員의 所得增大는 그 나라의 年年의 生産物의 價値增大를 意味하기 때문에 각자의 所得增大를 위한 노력은, 즉 각자가 自己利益을 추구함은 한 社會의 共同利益을 招來케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그의 世界觀에 따르면 私利와 公益은 完全히 일치한다. 이것은 資本의 용도를 결정하는 投資의 順位를 정부가 人爲的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自然 그대로 放任해 둘 것을 요한다. 보이는 政策의 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自然의 손에 引導될 때 산업 전반의 調和的 發展과 社會의 진보가 達成된다고 본다. 經濟活動에 대한 主權者의 干涉을 증오하는 그의 一文을 읽어 보자.

“What is the species of domestic industry which his capital can employ, and of which the produce is likely to be of the greatest value, every individual, it is evi-

7) *ibid.*, pp.409, 415.

dent, can, in his local situation, judge much better than any statesman or lawgiver can do for him. The statesman, who should attempt to direct private people in what manner they ought to employ their capitals,..., but assume an authority..., and which would nowhere be so dangerous as in the hands of a man who had folly and presumption enough to fancy himself fit to exercise it.”<sup>8)</sup>

한 家計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한 國家의 경우에서도 製作하는 것보다도 購入하는 것이 더 싸게 들 때에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도 自然스러운 길이다. 국내의 한 産業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獨占을 許容하는 政策은 잘못이다. 즉 어떤 産業의 生産物이 外來品の 가격과 같다면 그것의 생산이 반드시 必要치 않고, 만일 外來品の 가격보다 비쌀 때에는 消費者的 厚生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민에게 有害하다. 국내의 幼稚産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政策이 政府當局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으면, 훗날 自立할 수 있는 産業도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는 이유 때문에 重商主義的 保護政策은 한 歷史的 時點에서는 妥當하다고 보는 생각에도 그는 反對한다. 幼稚産業의 보호는 社會總資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一資本量을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轉移함에 불과하므로 그동안 오히려 社會成員의 所得은 감소하고 社會資本의 形成도 減退케 된다는 것이다. 잘라 말해서 이러한 幼稚産業들이 소멸하여 한 나라에 그러한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앞날에는 貧國이 到來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國防을 요하는 오늘의 概念에서도 그러하듯이 防衛産業과 같은 特殊産業을 제외하고는 政府가 경비를 들여가면서 輸入制限을 함은 부당한 조치라고 한다. 이는 국부증진보다도 國防을 우선하는 그의 見解때문이었다.

輸入制限은 일부 상인층과 제조업자층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의 獨占과 新규의 독점에게 特權을 줌으로써 政府의 關稅收入을 줄이고, 自由貿易에 대해서는 그 效果가 否定的이고, 社會的 厚生에도 逆行的이다. 世界 전체적으로 본 때는 판다고 함은 산다고 함을 뜻하는데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지구상의 모든 國家들이 貿易差額을 자국에 유리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世界貿易 자체를 破壞할 것이다. 실은 貿易差額이 均衡일 때에도 각국은 다함께 利益을 얻는다.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에도 國際貿易 純粹理論으로서 그 古典的 意義를 갖는다 하겠다. 그후 발전한 古典學派의 比較優位說이나 相互需要의 理論도 또 新古典學派의 資源賦存說까지도 그 想源을 Smith에게서 찾지 않을 수 없다.

무역에서 얻는 利害關係는 年年의 生産物의 交換價値가 증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外來商品의 購入에 있어 그 輸入代辨을 금·은으로 지불하든 그

8) *ibid.*, p. 423.



렇지 않으면 자국 국민이 생산한 生産物로 지불하든 아무 상관 없다. 따라서 一國이 勞動生産物만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으로서 輸入에는 하등의 障礙가 없다는 것이 Smith의 견해다. 이는 瑕疵를 찾을 수 없는 지극히 올바른 생각이다. 商業去來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어떠한 거래행위이든 等價交換인 이상 물건의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치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見解는 金・銀과 他 一般商品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의 생각의 表明이다. 옛날부터 상업의 본질은 상호 友情의 紐帶이며 同盟性에 있었는데 상인층과 제조업자들에게 特權의 政策을 베풀게 되면서 부터는 社會的 대립과 反目的 源泉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들의 獨占意志는 극복되어야 하고 自身들의 이익이 곧 社會의 이익인 듯이 美化하는 見解는 認定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國富增進의 原因이 貿易差額이 有利하고 불리한 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產業의 생산과 국민의 소비 사이에 均衡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輸入制限이라고 하는 政府의 庇護下에 國內市場을 독점할 수 있었던 상인층과 제조업자들은 더욱 그 힘을 伸張하여 國外市場을 占有할 생각으로 다시 수출促進政策을 호소한다. 그 具體的인 要請은 輸出獎勵策으로서 關稅還拂, 輸出獎勵金, 通商條約 및 植民地開拓 등이었다. 이중 Smith의 눈에 그래도 合理的으로 보인 것은 關稅還拂인데 이것은 그 賦課로 인하여 무너진 產業 사이의 자연스러운 均衡을 課稅前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效果를 지니기 때문이다.

“Merchants demand encouragements to exportation.... of these encouragements what are called Drawbacks seem to be the most reasonable.... They tend not to destroy, but to preserve, what it is in most cases advantageous to preserve, the natural division and distribution of labour in the society.”<sup>9)</sup>

그러나 이 관세환불은 수출한 商品이 자국으로 再輸入되지 않을 때에만 效果가 있고 對植民地 去來에서와 같이 무역이 獨占된 경우에는 좋은 獎勵策이 될 수 없다고 그는 指摘한다. 輸出獎勵金은 國外市場에서의 價格보다 높은 자국 產品을 수출하고자 할 때 輸出業者에게 그로부터 발생하는 損害를 補償하는 것이 되고, 그 產品에 대한 外國의 수입업자에게는 購買資金을 一方的으로 줄을 뜻한다. 이러한 무역정책의 형태는 자국 產業에서의 자연적 均衡을 破壞하고 국민 앞에는 二重의 課稅를 거두어 들이는 불합리성이 있다. 더우기 穀物에 대하여 輸出獎勵金を 줄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우선, 穀物의 輸出增加로 外國市場이 신장된 만큼 국내의 穀物 消費市場은 縮小될 것이다. 다음, 穀物價格의 騰貴

9) ibid., p. 466.

는 勞賃을 전반적으로 上昇시켜 地主와 農業生産者의 實質收入은 늘지 않으므로 耕作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의 製造業者는 物價의 상승으로 對外競爭力이 약화되므로 不利한 입장에 놓이나 오직 目前的 이익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層은 穀物商들임을 들어 重商主義의 政策이 국민과 국내 産業 一般에 주는 否定的 影響을 밝힌다. 그리하여 그는 穀物の 生産과 去來에도 人爲的 制約이 없는 自由放任을 역설하고 있다.

"The effect of bounties, like that all the other expedients of the mercantile system, can only be to force the trade of a country into a channel much less advantageous than that in which it would naturally run of its own accord."<sup>10)</sup>

### Ⅲ. 分業과 勞動生産力

Smith가 살고 있던 時代는 바로 工場制手工業이라고 하는 産業發展段階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속에서는 세분화된 作業過程을 통한 노동의 成果가 증대하다. 따라서 分業(division of labour)이 勞動生産力 증진의 원인이고 이 분업을 통하여 노동자의 熟練과 技巧 및 判斷能力이 向上된다. 국민의 富가 勞動生産力의 증진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國富增進의 原因을 糾明한 그는 이것을 分業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한다. 분업이 주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는 평소 잘 보아오던 자기 故郷의 핀製造工場의 作業過程을 관찰한다. 동일인이 핀의 전 生産過程을 담당할 때보다 18個의 작업과정으로 10人이 專擔할 경우 하루 1인당 4,800개의 핀을 제조할 수 있음을 예로 들어 분업이야말로 국부증진의 원인임을 立證하였다.

"To take an example,... the trade of the pin maker;..., Those ten persons, therefore, could make among them upwards of forty-eight thousand pins in a day. Each person, therefore,... might be considered as making four thousand eight hundred pins in a day."<sup>11)</sup>

분업은 노동자의 熟練을 증진시키고 작업 중에 移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時間을 節約하게 되며 각자가 자기 담당의 作業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部分作業의 成果를 높이기 위해 보다 향상된 道具나 機械의 발명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계라고 함은 産業革命前의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당시 노동과정의 중심적 위치는 노동자였으며 기계의 發明은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오늘과 같이 專門的으

10) *ibid.*, p. 473.

11) *ibid.*, pp. 4, 5.

로 기계의 발명과 改良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그 性格이 다르다. 당시로서는 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短縮시키는 수단으로서 기계가 사용되었으며, 이 결과 勞動生産力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年年의 生産物의 증가, 즉 國富는 분업을 통한 노동의 熟練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분업에 의해서 文明社會는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文明社會는 不公平하다. 이 사회에서 비교적 윤택하게 살지 못하는 노동자의 生活을 改善하는 것이 Smith에게는 社會正義였다. 분업에 의해서 높아진 能率의 결과 生産物은 자기의 消費를 초과하게 되고 이것들을 他人의 剩餘生産物과 交換하게 되는데, 文明社會라고 함은 이러한 분업에 의한 교환사회를 뜻했다. 交換을 통하여 社會構成員은 서로 協力하여 살아간다. 이 때 이루어지는 交換의 基本原理는 同情心이나 仁愛心の 發露가 아니고, 서로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交換은 所有와 平等을 前提로 한다. 이같은 利己心을 토대로 交換의 動機를 설명하고 交換의 對象인 剩餘生産物의 형성은 勞動生産力이 증진한 데서 찾고 있으며 이 生産力의 증진은 分業의 결과임을 명시한다. 交換性向이 바로 분업의 起源을 이루고 있음을 밝힌다. 그런데 이 交換性向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自然的인 인간의 本性으로부터 由來되었다고 하는 점에 그의 자연법 哲學의 일면이 표명된다. 여기서 作業分業과 社會的 分業의 구별이 놓여지며, 또 그 結合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분업을 발생케 하는 힘을 交換性向에서 찾은 그는 분업의 범위를 交換力의 크기인 市場의 크기에서 찾는다. 이 때의 분업은 商品交換을 전제로 한 社會的 分業을 뜻한다.

“This division of labour, from which so many advantages are derived, is not originally the effect of any human wisdom, which foresees and intends that general opulence to which it gives occasion. It is the necessary, though very slow and gradual, consequence of a certain propensity in human nature which has in view no such extensive utility; the propensity to truck, barter, and exchange one thing for another.”<sup>12)</sup>

國富의 내용을 이루는 社會生産物을 생산함에 투입되는 노동은 그 형태상 Smith에게서는 두가지로 구별된다. 生産的 勞動과 非生産的 노동(productive labour; un-productive labour)이 그것이다. 생산적 노동은 노동자 자신이 自己의 勞動力을 再生産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勞動力의 價値와 자본가가 차지하는 剩餘價値를 생산한다. 이런 뜻에서 이 두 形態의 노동의 구별 기준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가 그렇지 못한가의 구분에서 찾고 있다.

12) *ibid.*, p.13.

“There is one sort of labour which adds to the value of the subject upon which it is bestowed: there is another which has no such effect. The former, as it produces a value, may be called productive; the latter, unproductive labour. Thus the labour of a manufacturer adds, generally, to the value of the materials which he works upon, that of his own maintenance, and of his master's profit. The labour of a menial servant, on the contrary, adds to the value of nothing.”<sup>13)</sup>

노동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勞動力을 再生産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가치인 賃金部分은 소비되고 마는 데 반하여 자본가가 자기의 利潤의 형태로 取得한 가치부분은 資本蓄積을 위하여 再投資되는데, 이 雇傭되는 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어야만 생산력이 증진되고 따라서 국민의 年年의 생산물이 증대한다고 한다. 非生産的 노동에 종사하는 者의 사회층을 Smith는 君主, 官吏, 立法家 및 學者 등을 열거하고 이들의 노동은 그 支出과 함께 소멸되고 하등의 價値創造도 없다고 한다. 이 점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誤謬가 아닐 수 없으나 거기에도 일면의 眞理性은 있다. 君主, 官吏, 學者 등 존경받던 사회층은 생산적 노동자층이 貢獻한 社會生産物에 寄生하여 먹고 사는 벌레와 같은 불미스러운 존재로 轉落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노동에 대한 二大區別은 社會層의 존재가치에 대한 認識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이런 뜻에서 「國富論」은 經濟學을 넘어선 社會哲學 書籍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封建社會에 마지막 打撃을 가한 것이고 그 후에 이어받은 産業資本의 成立과 발전에 향도적 역할을 했다.

地代와 利潤이 非生産적 사회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두 源泉인 동시에 또한 賃金과는 달리 消費하여 없어지는 所得部分이 아니고 節約할 수 있는 所得이기도 하다. 資本가가 자기의 소득인 이윤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절약해서 생산적 노동자를 雇傭한다면 이들 노동자들은 생산물의 가치에 利潤을 附加해서 재 생산한다. 만일 이와는 달리 자본가들이 향락만을 추구하고 浪費한다면 社會生産의 증대에는 하등의 貢獻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勞動生産物에 기생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에도 浪費(prodigality)는 국민의 公敵이고 儉約(parsimony)은 恩人이다. 바로 영국의 産業資本의 형성을 위해서도 자본가가 갖는 利潤은 낭비되어서는 아니 되었고 貯蓄으로 유도되어 投資에 연결되어야 함은 時代的 要請이었다. 생산적 노동만이 社會正義의 입장에서 정당시되었다. 이는 선진 産業社會에서도 그러하지만 後進社會일수록 더욱 올바른 주장이었다.

“Capitals are increased by parsimony, and diminished by prodigality and miscon-

13) *ibid.*, p.314.

duct. ...Parsimony, and not industry, is the immediate cause of the increase of capital. Industry, indeed, provides the subject which parsimony accumulates. But whatever industry might acquire, if parsimony did not save and store up, the capital would never be the greater.”<sup>14)</sup>

資本을 流動資本과 固定資本으로 구분한 Smith는 자본은 모두 노동자의 고용에 投下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는 生産資本에서의 구분이다. 生産에서 資本蓄積으로 인하여 分業이 促進되어 같은 바로 勞動生産力이 증진되어 같은 뜻하며 같은 노동자가 같은 時間에 종전보다 많은 生産을 함을 뜻한다. 그것은 分業이 勞動生産力 改善의 原因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增加는 이윤이 소비되어 버리지 않고 生産에 投資될 때 달성된다. 실은 이윤뿐만 아니라 그외의 어떤 收入도 生産的으로 사용되면 자본이 증가하고, 그로써 社會의 資財가 非生産的인 소비에서 生産的인 消費로 轉移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資本은 生産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利潤을 취득케 된다. 資本蓄積과 관련해서 그가 生産的 勞動과 非生産的 勞動을 구분한 의도를 알만 하다. 다시 말해 두지만, 生産적 노동은 生産過程에서 價値를 附加시키며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勞動이다. 한나라 전체로 보면 비생산적 노동을 하는 社會層의 인간이 작아지면, 生産的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數는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年年의 生産物은 늘어난다.

資本蓄積을 生産的 勞動者の 雇傭과 同一視한 점을 보면, 資本의 再生産過程에서 固定資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誤謬를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산업의 형태가 工場制手工業이었던 점을 보면 자본의 사용은 모두 勞動者の 임금으로 지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雇傭과 일치시켰을 것이고, 이에 따라 長期의 觀點이 아닌 短期의 觀點에서는 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社會生産物을 價値構成의 面으로 구분할 때에도 나타난다. 식료품, 原材料 및 完成品の 소멸부분은 補償해야 할 부분과 이윤과 地代로 구성되는 收入部分으로 나누어 지는 바, 勞動賃金은 앞의 부분에 속한다. 그리하여 一國 전체로 보면 生産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수와 非生産的 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수 사이의 比例는, 바로 年年의 生産物 중에서 차지하는 資本의 回收部分과 收入部分의 비율에 의존한다.

“So the proportion of productive hands depends on the proportion between profit with rent and the part of produce which replaces capital.... The proportion between capital and revenue, therefore, seems everywhere to regulate the proportion between industry and idleness.”<sup>15)</sup>

14) *ibid.*, p. 321.

15) *ibid.*, pp. 317-320.

富의 증대를 담당할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生産的 勞動者의 雇傭量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윤 및 지대 所得者層이 갖고 있는 收入部分이 전부 消費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貯蓄되어 자본으로 轉化되어야 한다. 당시 貯蓄의 여력이 없는 勞動者層의 절약에서가 아니라, 이윤 및 지대소득의 一部가 貯蓄되고 投資로 연결될 때 비로소 고용이 늘고 이 때 분업의 원리에 立脚하면 勞動生産力이 늘어 年年의 生産物이 증대한다고 보았는데, Smith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社會現實에서도 크게 무리없는 眞理라고 하겠다.

#### Ⅳ. 學說史的 意義

重商主義를 批判하는 작업으로 一貫된, 900面に 달하는 「國富論」을 지극히 부분적인 拔萃를 통해 우리는 그 內容을 살펴보았다.

思想史的으로는, 君主의 意志가 人民의 意志로, 身分에서 契約으로 바뀌는 時代的 변천에 발맞추어, 自由放任의 경제관으로 政策意志의 萬能性을 극복하는 課業을 Smith는 해냈다. 理神論의 세계관에 입각한 自然法 사상과 私的 利益의 算術的 和가 社會의 共同善으로 이어진다는 功利主義 사상은 政策이 아니라 放任을 주장하는 經濟的 自由主義의 哲學的 기반을 제공하였다.

經濟史的으로는, 商業資本에 등을 돌리고 産業資本을 支持 代辯함으로써 單線的 社會經濟의 進行을 屈折시켰다. 土地資本과 商業資本의 힘에 의해 마지막으로 힘겹게 지탱해 오던 絕對君主의 物的 기반을 무너뜨리고 小市民社會의 成立에 貢獻하였다. 그러한 뜻에서 1776년에 나온 北美大陸의 獨立宣言과 함께 「國富論」은 偶然의 一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다함께 時・空의 必然의 產物이다. 政治의 우연도 經濟의 必然의 延長線上的 한 點에서 발견할 때 올바른 것이다. 自然科學에 있어서도 그러한 하나 더우기 社會科學에서는 意識은 存在의 後走者다.

方法論으로 利己心의 發露가 모든 人間行爲의 動機임을 발견하고 效用과 利潤의 極大化를 追求하는 「經濟人」을 人間社會의 細胞的 構成要素로 본 점은 分析用具를 훌륭히 抽象化한 것이다. 학문은 구체적 歸納에서가 아니라 抽象的 演繹의 힘이 아니고서는 한발도 前進하지 못한다. 人類의 精神史를 통틀어서 위대한 思想의 表明者는 예외없이 추상화된 演繹의 힘을 保持한 者들이었다.

經濟學說史的으로는, 富 내지 國富의 本質을 當代에 支配的이었던 重商主義 學說體系에서처럼 金・銀과 같은 地金貨에서 찾거나, 증농학파에서처럼 純生産物을 가져온다고 여긴 유일한 요소로서의 土地에서 찾지 않고, 勞動, 그것도 生産의 노동

에서 發見하였다. 그로써 농업과 상업의 사회적 比重이 工業으로 넓어왔음을 적시하고 生産하는 産業資本을 옹호케 되었다. 勞動을 富의 本質로 보는 分析用具로 勞動價值學說의 계승은 훗날 資本蓄積의 裏面分析和 경제적 基本權으로서의 노동全收權思想의 想源으로 되었다. 富의 본질을 投下된 勞動에서 찾고, 富의 增進의 原因을 勞動生産力을 向上시키는 分業에서 찾은 점은 資本主義 經濟組織內에서의 勞動運動은 물론이고 共產主義에 대해서도 理論的 武器를 提供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國富論」은 그것이 밑던 굵던 오늘의 二大 經濟秩序의 記念碑的 文獻이다.

아울러 對外去來에서 보이는 손, 즉 政府의 干涉과 政策이 없는 自由貿易의 妥當性을 立證하였다. 이는 훗날 F. List<sup>16)</sup>에 의해서 强者의 支配原理는 되어도 弱者의 生存原理는 아니라고 批判받았으나, 당시 强者인 商業資本에 對決하여 弱者인 新産業資本의 立場에 섰던 Smith를 생각할 때, 또한 어느 學者도 祖國을 가진 國民經濟學者가 아닐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人類가 自然으로부터 離脫하여 스스로의 獨自的인 社會를 인위적으로 組織코자 할 때 이미 本源의 誤謬는 犯하고 말았지만 항상 矛盾과 투쟁속에서도 調和와 發展이 새로운 地平을 열면서 우리의 社會가 運行한다는 점을 볼 때, Smith로부터 그 精神的 것줄을 이어 받은 資本主義 經濟組織이 오늘날 變質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Smith의 思惟能力의 歷史的 限界를 뜻함이 아니라 하겠다. 時間과 더불어 변화하지 아니하는 現實이 없듯이 시간과 함께 褪色하지 않는 思想이란 存在치 않는다.

오늘날까지의 經濟學說史를 총망라하여 그 누구도 그의 元祖的 地位에 대응할 수 있는 者는 없다. 修正은 對決이 아니라 協助인 것이다. 國富, 즉 社會總生産物의 本質을 勞動에서 발견했으며, 그 生産物 증가의 原因을 分業에서 찾은 것이 바로 重商主義 經濟思想과 政策에 대한 反論의 核心이며, 바로 「國富論」의 壓縮된 內容 表明이다. 아직도 經濟學이 이 위대한 貢獻속에서 많은 原理들을 教科書의 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보면, 그 學問의 曲率半徑이 감히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를 二世紀 동안 미워한 者도 좋아한 자도 모두가 Smith의 弟子임을 否認치 못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6) List, F., *das nationale Systems der politischen Ökonomie*, Basel und Tübingen 1959 (first ed. 1841): 李柱辰(譯), 國民經濟學, 서울, 1983.

- with an introduction by Max Lerner*, Random House, Inc., New York, 1937.
2. List, F.,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Volksausgabe, eingeleitet von Artur Sommer*, Kyklos-Verlag Basel u. J.C.B. Mohr Tübingen, 1959.
  3. Soule, G., *ideas of the great economists*,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New York, 1962.



□ **Zusammenfassung** □

## Die geschichtliche Bedeutung der Smithschen Denkweise

Prof. Dr. Rhie Joosung

Die Smithschen Grundgedanken zu verdeutlichen ist das Thema dieser Arbeit. Es ist zuerst notwendig, daß man das sich damals vorhandene Fragebewußtsein, dessen Produkt die Ideen sind, begreift, um die ökonomischen Ideen als eine Disziplin der Geschichte des Geistes richtig verstehen zu wollen. Darum muß man die Wirklichkeit des damaligen menschlichen Lebens gut beobachtet haben. Daß die Wahrheit ohne deren Zeit und Raum existiert, hat uns noch keine menschliche Geschichte gelehrt. Eigene Bewegung der Dinge, beziehungsweise des menschlichen Denkens, ist ihre Daseinsweise.

Die nationalökonomischen Entwicklungsstadien, d. h. die Unterschiede der materiellen Zustände, ergaben die Unterschiede zwischen ihren Bewußtseinskristallisierungen. Die Schule von Adam Smith, die zwei Grundgedanken, die natürliche Rechtsphilosophie als eine Weltanschauung von Deismus einerseits und den Utilitarismus, der als eine höchst ethische Norm die allgemeine Wohlfahrt der arithmetischen Summe individuellen Glücks bewertete, andererseits, gegründet hat, war eine Laissez-faire orientierte, herrschende Schule, und ihre Theorie beinhaltete grundsätzlich in ihren Zeitalter das Tauschwertprinzip.

Adam Smiths allgemeine Deduktion, seine Theorie des Tauschwerts und die Behauptung der Handelsfreiheit geben der Politik des auswärtigen Freihandels einen Eckpfeiler. Die Smithsche Denkweise gründete sich auf die natürliche Rechtsphilosophie und den Utilitarismus, um das Merkantilsystem zu beseitigen, und damit unterstützte sie die Entstehung des industriellen Kapitalismus. Bei ihm ist die produktive Arbeit das Wesen des Wohlstands einer Nation.